

# 時가 있는 오후

시낭송작품

작가와의 만남

곽재구 詩人

詩가 있는 오후

시낭송 · 시화전



일시 : 2005년 12월 19일(월) 오후2시

장소 : 곡성군민회관 소강당

주최 : 곡성문화원, 자운영독서회, 설산의향기독서회

후원 : 새마을운동 곡성군지회



「낙타풀의 사랑」 중에서..

## 나루터 이야기

보성강변에 나루터가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루터에는 한 뱃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나룻물 강썰'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의 성씨가 강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와 그의 눈먼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25가 끝난 직후니까 지금부터 40년이 조금 더 된 때의 일입니다. 이날은 장날이었습니다. 나루터에는 장꾼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강 건너 석곡의 닷새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룻물 강생.”

사람들이 나룻배에 올라타며 인사를 건네면 그는 꼭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녕하구말굽쇼. 이렇게 꽃들이 예쁘게 피었는데…….”

그는 나룻배를 서서히 저어 건너편 강기슭까지 건너갔습니다. 장꾼들은 나룻배에서 내리며 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게. 내가 좋은 꽃 꺾어 움세.’ ‘강생, 이쁜 꽃 꼭 찾아올게. 지난 장날보다 더 이쁜 꽃’ 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이 나루터에서만 통용되는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루터에서 뱃사공과 손님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즉 뱃삯에 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뱃사공은 또한 늘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한 아름씩 꺾어 와유. 빛깔도 이쁘고 향기도 좋은 걸루.”

장이 파하는 시간이 되면 장꾼들은 20리의 산길을 걸어 다시 나루터로 돌아옵니다. 짐보따리 속에는 장에서 새로 산 물 건들이 몇 가지씩 들어 있게 마련입니다.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올 때, 이때가 바로 장꾼들이 뱃삯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장꾼들은 칙꽃을 한 아름 꺾기도 하고, 어떤 장꾼들은 원추리꽃이나 나리꽃을 한 다발 꺾기도 합니다. 장터 가까운 민가에서 과꽃이나 해바라기꽃을 꺾어 오는 장꾼도 있습니다.

“받게나. 참 향기가 좋은 꽃일세.”



장꾼들이 인사를 건네며 꽃뭉음을 안겨주면 나룻물 강생의 입이 해바라기꽃만큼이나 크게 벌어집니다. 나룻배 안은 장꾼들이 가져온 짐들과 꽃들로 가득 차게 되지요. 장꾼들이 다 돌아오면 나룻물 강생은 서서히 노를 저어 다시 마을로 돌아 갑니다. 그럴 때 나룻배 안은 장꾼들의 이야기 소리와 꽃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강가에는 나룻물 강생이 사는 오두막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두막 앞에는 아주 조그만 배 한 척이 나룻배 곁에 묶여 있습니다.

“연화야, 아버지 왔다. 꽃 많이 가지고.”

나룻물 강생은 오두막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딸을 껴안아줍니다. 딸은 반가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6·25가 터진 얼마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피난민들이 나룻물 강생의 나룻배를 탔습니다. 그 속에는 갓난아이를 안은 한 젊은 아낙이 있었습니다.

“아이구 고놈, 귀엽기도 해라.”

나룻물 강생은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방긋 방긋 웃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까지 나룻물 강생은 몇 차례나 아이를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내게도 저런 아이가 하나 있다면’ 하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 오두막의 문을 열고 나서던 나룻물 강선은 그  
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가 강보에 싸인 채 문 앞  
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본 그 아이였습니다.

“나도 딸이 생겼어요.”

언제부터인지 나룻물 강선은 장꾼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  
다. 딸을 얻은 그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 딸이 앞을 보지 못  
하고,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금세 알았지만 그는 아무 상  
관없이 행복했습니다.

무식날(정기적으로 장이 서는 마을에서, 나머지 장이 서지 않  
는 날)이면 그는 작은 배에 딸을 태우고 강을 따라 구례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강을 따라 가면서 그는 딸이 처음 자신의  
오두막에 왔을 때 곁에 놓여 있던 연꽃송이를 생각했습니다.  
강 어딘가에 분명 그 연꽃이 피어 있는 마을이 있을 것 같았습  
니다. 그가 딸의 이름을 ‘연화’라고 붙인 것도 사실은 그 연  
꽃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꾼들 속에서 함께 나룻배를  
타던 한 스님이 뱃삯 대신 꽃을 받는 나룻물 강선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꽃을 좋아해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꽃  
냄새만 나면 방긋 웃어요.”

스님은 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아이에게 꽃을 바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 꽃은 나룻물 강생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을 앞 강물 위로 다리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세워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나룻물 강생이었습니다. 다리가 들어선다면 자신의 나룻배를 타는 사람들이 없어질 터이고 그렇게 되면 꽃을 건네줄 사람들도 없어지게 될 터였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눈도 보이구요.”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나룻물 강생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점점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고운 심성을 지녔다는 것은 알지. 그렇지만 꽃향기로 딸의 눈이 보일 수는 없지. 말을 하게 할 수도 없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안사의 스님이 불쌍해서 한 말을 그대로 곧이듣다니…… 쫓쫓” 하

고 허를 차기도 했습니다.

“제발, 3개월만 더 기다려줘요.”

다리가 거의 다 만들어졌을 때 나룻물 강선은 거의 울다시피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안되었지만 다리는 우리들의 꿈이네.”라고 말했습니다.

다리가 완공되던 날은 마을의 축제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국회의원과 군수가 멋진 인사말도 했습니다. 이제 곧 마을까지 버스가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룻물 강선과 나룻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년 혹은 30년씩 그의 배를 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강변에 작은 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룻물 강선이 살았던 오두막이 완전히 불타 가만 재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척의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물살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는 늘 그랬듯이 이쁜 꽃들로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언제부턴가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두 척의 나룻배는 나루터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마을 아이들이 꽃을 꺾어 와 작은 배를 치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움직인 한마디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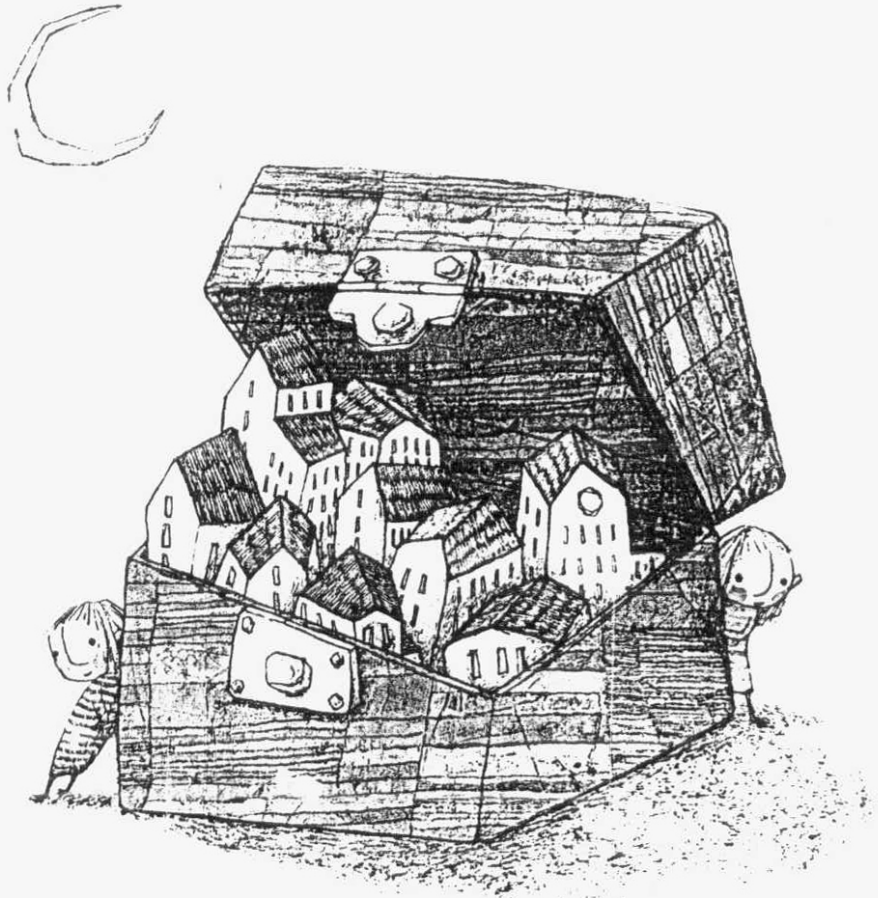
## 얼른 와, 기다리고 있을게

\_곽재구



어릴 적 내게는 집이 참 많았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늘 학교 뒷산을 오르곤 했다. 그곳에선 내가 사는 동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해가 지는 시간이 찾아오곤 했다. 몇몇 집들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몇몇 집들의 창에 반짝 알전구 불빛이 들어왔다. 그즈음이면 내가 목소리를 기억하는 아낙들이 자신들의 아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OO야, 밥 먹어라. 그 소리는 고즈넉한 저녁 마을의 공기를 카랑하게 흔들었고 어린 내 눈가에는 몇 방울 이슬방울이 맺히기도 했다.



언덕 위에 서서 불 켜진 집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둠 속에 반짝이는 집들이 모두 나의 집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 주지 않는 집. 저녁을 먹으라는 어머니의 목소

리가 들려오지 않는 집. 학교가 끝나도 돌아갈 집이 내게 없다는 것에 대해 쓸쓸했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해야만 했다. 언제,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았던 집을 잃어버린 거라고……. 지금은 돌아갈 곳이 없지만 세상 어딘가에 내가 머물 아름다운 집을 꼭 지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 무렵 나는 떠돌이 생활을 했다. 먼 친척 집에서 몇 달씩 더부살이를 하기도 했고,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녔으나 희망의 씨앗을 하나도 지니지 못한 아이들이 원장의 학대 속에 살아가는 집단 시설에서 얼마쯤 머물다가 빠져나오기도 했고 생면부지의 집에서 세 해쯤 꼴머슴을 살기도 했다.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무렵, 언덕 위에서 바라보던 불 켜진 집들처럼 내 마음 안에 따뜻한 열망의 시간 하나가 흘러들어 왔다. 그것은 내 삶이 경험한 최초의 기적에 관한 것이었다. 칙박한 하루의 시간이 끝나고 지상의 어느 차가운 구들 위에 비럭잠을 잘 때 잠 속에서 나는 한 소녀를 만나곤 했다. 눈이 크고 맑은 그 소녀는 내게 이렇게 얘기했다.

얼른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적이면 마음 안이 박하 꽃밭처럼 환

해졌다. 꿈에서 깨어나도 그 따뜻하고 촉촉했던 그 애의 목소리가 오래 남았다. 돌아갈 집이 없어 세상의 모든 집을 내 집이라 여기며 살았던 그 쓸쓸했던 어린 시절 그렇게 희망의 시간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언젠가 꼭 소녀가 사는 곳을 찾아갈 것이라 생각했고 그곳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했으며 내가 지닌 모든 지상의 시간 속에서 무슨 주문처럼 그 말을 외곤 했다.

얼른 와, 기다리고 있을게.

많이 쓸쓸하고 많이 우울하고 절망이 깊었던 사춘기 시절 그 애는 내 첫사랑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 애에게 부치지 못한 무수한 편지를 썼고 그 애를 위한 시를 썼다. 꿈속에서 나는 그 애와 첫 키스를 했고 첫 몽정을 경험했다.

군대에 들어가고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이 시작될 무렵까지 나는 그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애는 늘 신비하게 웃으며 얘기했다.

얼른 와, 기다리고 있을게.

어린 시절 나는 불이 환히 켜진 창문을 지닌 집들을 바라보기 좋아했다. 창문 너머에서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식구들의 도란거리는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집에서는 감자를 넣은 된장국 냄새가 스며 나오기도 했다. 낮은 추녀 아래 서서 누군가의 불 켜진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다보던 시절, 한 희망의 이미지가 나를 찾아왔다.

언제부턴가 나는 더 이상 그 애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내 생의 사막 지대가 펼쳐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아기참새 찌꾸」 中에서..

## 첫눈을 위한 시

찌꾸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꼬박 사흘 뒤였습니다.

도솔이 지닌 신비한 의술이 찌꾸를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도미와 그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호도 빼놓을 수 없는 일 이겠죠.

제일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산나무의 참새들이 찌꾸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찌꾸는 생명의 은인이었으며 또한 영웅이었고 살아 있는 한 편의 신화였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런 마음으로 찌꾸를 그들의 대오에 편입시켰습니다. 찌꾸를, 새매의 새끼가 아닌 한 마리의 정당한 참새로 인정한 것입니다.

도솔은 찌꾸에게 ‘도빈’ 이란 새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숲 속의 빛’ 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빈!

숲 속의 빛!

찌꾸는 그 이름 또한 사랑했습니다. '찌꾸'가 자기 가문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다면 '도빈'은 도미네 집안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찌꾸가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이 날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목화 송이처럼 하얗고 탐스러운 함박눈이었습니다. 아, 하고 혀를 내밀어 받아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입 안에서 녹았습니다.

모든 산과, 들과, 나무와, 집들이 하얀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산나무 위에도 하얀 눈이 덮여 멀리서 보면 그것은 커다란 눈 우산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눈들은 바람을 막아 주

어 당산나무에 깃을 친 참새들의 보금자리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눈이 좀 늦기는 했지만 이렇게 평평 내리는 걸 보니 내년에는 살기가 더 나아질 거야.”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나이 든 참새들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다시 날 수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어. 다 도미 너와 너희 식구들 덕분이야.”

“네가 날 수 없으리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이 건 내 생각만이 아닌 이곳에 사는 모든 참새들의 생각이 자 소망이었을 거야.”

첫눈은 평평 내렸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은빛으로 뒤덮였습니다.

눈은 지금은 도빈이 된 찌꾸의 잔등에도 아름다운 도미의 눈망울 속에도 내렸습니다.

둘은 눈 속을 팔랑팔랑 날았습니다.

온몸이 눈에 뒤덮인 그들의 모습 또한 첫눈이 되어 내리는 듯싶었습니다.

찌꾸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을 찌꾸는 ‘첫눈을 위한 시’ 라고 붙였습니다.

내가 만약  
첫눈이 된다면  
난 너희 집 마당 앞에  
제일 먼저 내릴 거야

들에도  
산에도  
나무에도  
교회당의 예쁜 십자가 위에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  
첫눈이 된다면  
난 너희 집 마당 앞에  
작고 예쁜 참새 발자국 하나  
새길 거야

창을 열면  
년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세 알 수 있겠지

내가 만약  
첫눈이 된다면  
난 너의 꿈 속에  
제일 먼저 내릴 거야

종종종 종종종  
작고 예쁜 발자국으로  
뛰어다니다가  
너 외엔 아무도 볼 수 없게  
온 세상을 은빛으로 덮을 거야.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음처럼 몇은 줄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 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샤룩샤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첫눈 오는 날

곽재구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하늘의 별을  
몇 섬이고 따올 수 있지

노래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새들이 꾸는 겨울꿈 같은 건  
신비하지도 않아

첫눈 오는 날  
당산 전철역 오르는 계단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슴속에 촛불 하나씩 켜들고  
허공 속으로 지친 발걸음 옮기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다닥다닥 뒤엉킨 이웃들의 슬픔 새로  
순금빛 강물 하나 흐른다네

노래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알몸들이  
사과꽃 향기를 날린다네

강

곽재구

내 가슴 속  
건너고 싶은 강  
하나 있었네  
오랜 싸움과 정처없는  
사랑의 탄식들을 데불고  
인도 물소처럼 침범침범  
그 강 건너고 싶었네  
들짚레꽃 향기를 좇아서  
작은 나룻배처럼 흐르고 싶었네  
흐르다가 세상 밖, 어느 숲 모퉁이에  
서러운 등불 하나 걸어두고 싶었네

겨울의 춤  
곽재구

첫눈이 오기 전에  
추억의 창문을 손질해야겠다.

지난 겨울 쌓인 허무와 슬픔  
먼지처럼 훌훌 털어 내고  
뼈격이는 창틀 가장자리에  
기다림의 새 못을 쳐야겠다.

무의미하게 드리워진  
낡은 커튼을 걷어 내고  
영하의 칼바람에도 스러지지 않는  
작은 호롱불 하나 밝혀 두어야겠다.

그리고...  
차갑고도 빛나는 겨울의 춤을 익혀야겠다.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곳  
뜨거운 사랑과 노동과 혁명과 감동이  
함께 어울려 새 세상의 진보를 꿈꾸는 곳  
끌어 안으면 겨울은 오히려 따뜻한 것 ...



동해-서태지에게

곽재구

꿈을 위해선  
사랑을 버려도 좋지

보리순 파랗게 돌은  
갓 스무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상상해지는 거친 파도들이지

반역을 위해선  
이세상 제일 치밀한 함정도  
두려워하지 않지

그래  
두려움은 세상의 끝이지  
보이지 않는 안개의 속살보다는  
보다 명징한 삶의 목소리를 원하지

꿈을 위해선  
청춘을 불태워도 좋지

그래  
꿈을 위해서  
청춘을 불태웠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보리순 파랗게 돌은  
갓 스무살

우리에게 반역의 꿈이 있지  
우리에게 불타는 청춘의  
칼날이 있지

## 그리움

곽재구

이른 새벽  
강으로 나가는 내 발걸음에는  
아직도 달콤한 잠의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 중  
눈빛 초롱하고 허리통 굽은 몇 올을 끌어다  
눈에 생채기가 날 만큼 부벼댁니다  
지난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낡은 나룻배는 강둑에 매인 채 출렁이고  
작은 물새 두 마리가 해 뜨는 쪽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이여  
설령 당신이 이 나루터를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내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설레이는 몰살처럼 내 마음  
설레이고 또 설레입니다.

## 따뜻한 편지

곽재구

당신이 보낸 편지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물푸레 나무가 그려진  
10전 짜리 우표 한 장도 붙여 있지 않고  
보낸 이와 받는 이도 없는  
그래서 방새워 답장을 쓸 필요도 없는  
그 편지가 날마다 내게 옵니다

걸봉을 여는 순간  
이 꽃으로 물들인 지상의 시간들  
우수수 쏟아집니다  
그럴 때면  
내게 남은 모국어의 추억들은 얼마나 흥직한지요

눈이 오고  
꽃이 피고  
당신의 편지는 꿈일 날 없는데  
버리지 못하는 지상의 꿈들로  
세상 밖을 떠도는  
한 사내의 괜한 눈빛 하나 있습니다

희망을 위하여

곽재구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은 껌안은 두 팔을 놓지 않으리  
너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두터운 네 등 위에 내려 앉는  
겨울날의 송이눈처럼 너를 포근하게  
감싸 껌안을 수 있다면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네 곁에 누울 수 없는 내 마음조차 더욱  
편안하게 어머니의 무릎처럼  
고요하게 나를 누일 수 있다면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으리  
두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질러오는  
한세상의 슬픔을 보리  
네게로 가는 마음의 길이 굽어져  
오늘은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게로 가는 불빛 잃은 발걸음들이  
어두어진 들판을 이리의 목소리로 울부짖을지라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은 껌안은 두 손을 풀지 않으리.

또 다른 사랑

곽재구

보다 더 자유  
스러워지기 위하여  
꽃이 피고  
보다 더 자유  
스러워지기 위하여  
밥을 먹는다  
함께 살아갈 사람들  
세상 가득한데  
또 다른 사랑 무슨 필요 있으리  
문득 별 하나 뽑아 하늘에 던지면  
짹하고 가을이 온다.

제비꽃 사설

곽재구

네 이름이 뭐냐  
땅끝 가는 완행버스 길  
바람 걸치고 걷다  
풀 언덕에 앉아 물어보면  
숨털 보송보송한  
자주색 꽃들이 입을 모아  
사 랑 부 리 꽃

우리나라 사람들  
싸우지 말고 용서하며  
맑고 고운 희망 나라 통일 나라  
얼른 세우라고 입모아  
사 랑 부 리 꽃

네 이름이 뭐냐  
굴동 가는 도암만 시오리 길  
개울물에 보리 미숫가루  
풀다 물어보면  
숨털 보송보송한  
자주색 꽃들이 입을 모아  
도 끼 꽃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의 슬픔들 몽땅 털어버리고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  
들판 곳곳에 세우라고 입모아  
도 끼 꽃

은행나무

곽재구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앞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뒤편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귀 축 도

- 서정주 - 낭송: 이재백소설가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밝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리  
흰 옷깃 여며여며 가옵신 임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의  
울울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햇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축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임아.

## 빈손

낭송: 장숙자

나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질게 무어나고  
'무아 무소유'의 진리를 깨우친  
칭화 큰 스님의 말씀  
오늘 따라 가슴속을 저민다.  
마음을 비우는 곳엔 욕심도 거짓도 비굴함도 없는  
정겨움이 들어와 눕는데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에 넘치는 것은 탐욕일 뿐  
내 것은 아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에  
갖고 싶은 욕망으로 허덕여 온 삶  
네가 있기에 내 코를 세워야했던  
지난날 몸부림은 모두 도토리 키재기인데  
가진 것 내 것이 아니기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가는 것을

## 다비식

낭송: 신 금 순

소리 없이 녹아 가벼히 흔들리는 촛불이네  
사르는 향불 한줄기 연기로 피어나네  
청향한 죽비소리 적묵당에 퍼지네

차일봉 넘어 노고단 파아란 하늘 끝에  
하아얀 구름 한 자락 피었다 사라지네  
흔적이 없네

봉천암 풍경소리  
홍련암 파도소리  
태안사 동리산 목탁 새소리  
백련사 동백숲 바람소리 대숲소리  
도림사 앞개울 물소리로 흘러 가네

압록 섬진강 강변따라 흐르는 강물이다가  
강물 희살짓다 반짝이는 햇살이다가  
강 건너 억새풀 스치고 산모퉁이 돌아  
허공으로 달아나는 바람이네

보광전 처마 끝에 초나홀달로 걸렸다가  
동락산 서편 자락으로 어느덧 넘어갔네  
궁현당 뒷마당에 별빛으로 쏟아지네

## 좋은 시절

낭송: 임경희

발길에 채이는 것이 사람이지만  
당신처럼  
기댈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사람은  
귀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당신처럼  
열중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주 귀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은 흔하지만  
당신처럼  
울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너무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토록 드물고 귀한  
당신을  
곁에 두고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 인연의 자리 / 용혜원      낭송:손영희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낯설지 않은 길이 있듯이  
내 인생 어느 인연의 자리에서도 가질 수 없었던  
간절한 그리움으로 당신을 봅니다.

지금 을 위해서만 준비된 오랜 시간  
내겐 가슴에 둔 한 사람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처럼  
하루를 억겁처럼, 억겁이 또 찰나처럼  
유한한 것도 무한한 것도 내게는 없는 듯 합니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나는 당신으로 채워져 가고  
나를 잊으며 사는 내 영혼의 행복을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음은 아마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 일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 전  
당신은 어쩌면 나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윤회하는 시간 속에서 결코 닿을 수 없는 인연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 이 세상에 함께 있음이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소망입니다.

한없이 힘들고 깨어져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당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쓰러져 가는 나를 일으켜 세워  
당신으로 인해 행복하렵니다.

질기고 질긴 인연의 바다  
억겁의 세월을 지난 바위가 모래가 되고  
다른 세상에서 내린 빗방울 하나가  
같은 강을 흐르는 물로라도 같은 바다를 지나는 물로라도  
닿을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죽어서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설움의 세월이 다 지나 천년을 하루같이  
천번을 살다간 불세의 전설처럼  
여름 한철 잠시 피었다가 사라진 무지개처럼  
그대의 엷은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어느 한순간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떠나고 없는 자리가 빈자리가 될지  
당신이 떠나고 없는 자리가 빈자리가 될지  
서로 빼앗고 싸우며 살아야 할 소유가 아님에  
진정 서로를 위하여 자유로우며  
조금씩만 조금씩만 우리의 인연이 슬픔이 아님을 믿으며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순간순간 서로의 기쁨이 되어 줍시다.

!

당신을 바라봄으로서 진정 행복한 나를 만나고  
그런 나로 당신께 오래도록 기억되며  
당신이 혼자 걸어 갈 슬픔의 골짜기가 있다면  
이젠 함께 가고 싶습니다.

## 母

낭송: 야마모토 슈우꼬

今わかった  
あなたも痛かったこと  
今わかった  
あなたが痛かったこと

あなたが「大丈夫だよ。」と言ったその時、  
涙があったこと、、、

今わかった  
あなたが、こうして愛してくれたこと

心がさけぶ。  
「神様この子を助けてください。」  
目の前が海になって  
手をのばした先に四歳の私がいた。

あなたの愛、あなたの痛み  
今その熱い思いをだいて祈る私

今わかった

# 어머니

번역시 야마모토수우코

이젠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것을  
이젠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당신께서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은 마음으로 울고 계셨다는 것을

이젠 알아요.  
당신께서 절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신이시여.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바다를 이룰 때  
손을 내밀면 문득 네 살 적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고통  
지금 그 뜨거운 심정을 안고 기도 드리는 전

이젠 알아요.

## 서 설

낭송:정숙희

밤사이 소리 없이 소복소복 내린 첫눈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발목길이 만큼이나 푹푹 빠지던 첫눈은  
기어이 아이들 학교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그냥 입기만 합니다.

산 속 깊이 살고 있는 도시 농도 아니고  
촌농도 아닌 우리는  
시내로 나갈 일이 하염없이 걱정되어  
괜히 내리는 눈이 싫기만 합니다.

그래도 눈이 많이 와야 풍년이 든다는  
어른들 말씀에 먼 산 넘어 솔가지 쌓인 눈이  
괜 시리 멋있어 보입니다.

MY NATIVELAND

낭송: 베벌리에이로사노

Philippine is a place where I came from  
The land of the pearl, of exotic east  
From the nation of Malays,  
To the ancestors from Spanish and Chinese,

Though it composed of many islands  
You can see all the scenic beauty around  
Where there are rivers, falls, volcanoes and seas  
A place everyone can be proud of,

And though we spoke many dialects  
Akin to Latin and English,  
We use "Tagalog" as our national language  
For all the people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even if we go to a far places  
Our native tongue cannot be forgotten  
As one of our saying says;  
"One who doesn't love his native tongue is worse than putrid fish and beast".

## 나의 모국

필리핀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  
진주와 이국적인 해안의 나라  
말레이제에서  
스페인과 중국에서 온 다른 선조들까지

사방에는 섬 천지에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풍경뿐이네  
강이며 폭포며 화산이며 바다며  
누가 본들 뿌듯하지 않으리오

방언도 많고 많아라  
라틴제와 영어의 사촌들  
그 중에서도 “타갈로그는” 공용어  
모두들 이 말로 소통 한다네

아무리 멀리 떠나 있다 한들  
모국어야 잊을 손가  
우리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오  
“모국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썩은 고기와 야수보다 나쁘다” .

# 빈들

낭송: 박성숙

들녘에 나서서  
따사로운 가을볏에 서둘러 영글어 가는 씨알들을 살펴본다.

황금 들판에 한 해의 결실로 풍성함이 넘실대고,  
논둑 가득 가득 넘쳐나는 벼이삭들을 슬어 둑길을 걸어봐도  
빈들은 빈들이다.

눈길 머무는 곳에 크고 작은 나무,  
작은 풀꽃자리에 씨앗이 망울망울 넘쳐나도  
빈들은 빈들이다.

모든 씨앗들이  
사람들 손길 따라가고  
빗방울의 물 길 따라  
새들의 노래 따라  
바람의 몸부림 따라서 제 자리에 들어서고,  
버티어 흔들리던 풀포기의 줄기도 땅속에 내려앉아  
황량한 들녘에 참새들만 푸르렁 날아들어도  
빈들은 빈들이다.

처음부터 빈, 들은 빈들이다.

땅 속으로, 땅 위로  
손님처럼 안겨든 모든 생명들을 품어  
천만번이 넘쳐나는 그 되돌림 속에서도  
단 한번밖에 없는 혼신의 힘으로  
불들어 세우고 다독인다.

겨운 사랑으로 싹을 틔워,  
가슴을 열어,  
햇살을 담고 빗방울을 받아  
바람과 스러지며 사랑을 노래한다.

싫다고 밀어내지도 않고  
좋다고 끌어안지도 않아  
그 저 맡겨진 대로 혼신을 다 할 뿐  
그렇게 빈, 들은 비어 있다.

빈들은 그 많은 생명들을 품어 안고서도 팔을 벌려 비어있음을 보여준다.

텅 비어 있던 빈들이  
내 마음에 오롯이 자리하던 날  
감히 빈, 들이고 싶어  
머리기대고 눈 감아 보던 날

빈들은 속삭인다  
빈들은 빈, 들일뿐이라고



## 사투리로 만나는 고향

등장인물: 슈우꼬, 에밀린다, 베벨리, 최향화

손을 흔들고 무대에 올라 오면서

슈우꼬 : 일본말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향화 : 인사말을 그렇게 지그나라 말로 씨부렁대면 누가 알아 묵는다냐? 한국땅 절라도 곡성말로 허랑께!

슈우꼬 : 안녕하신게라우. 만남께~~ 영판 좋소 잉.

에밀린다 : 좋소라면 솟소란 말이여 하여간 만남께 좋다야.

최향화 : 오메 오메, 이 사람은 너머 너머 싸가지 없이 말을 배웠네 잉.

나이 더 묵은 언니한테 해라가 뭐당가?

혀뿌닥이 반 토막인가버여.

에밀린다 : 잘못 했소 잉. 하여간 요렇게 큰 잔치자리에서 만남께 영판 반갑소 잉.

베벨리 : 나도 되게 좋다야. 오늘은 우리들의 축전께 걸판지게 한판 놀아보더라고 잉.

에밀린다 : 맞아 맞아, 천리만리 고국떠나 타국에서 사는 우리 헌데 외로움을 달래 줄라고 곡성문화원과 우리 자운영독서회와 설산의 향기독서회에서 이러케 좋은 무대를 만들어준께 얼메나 고맙소-잉.

슈우꼬 : 뭐여? 외롭다고?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허고 자빠졌네.

한국땅 절라도 머시메 좋다고 딱 달라붙어 꿀마리 잡고 따라올 때는 언제고 밤이면 밤마다 깨 쏟아지게 살다가 알토란 같은 자식 주렁주렁 낳고 사는 애팬네가 외롭긴 뭐시 외롭당가

최향화 : 맞아 맞아 고향 고향 허지만 고향이 뭐시당가.

정들면 고향이제. 카수 김상진이 노래도 못들어 봤는가.  
이때 노래 나온다.

(노래...정들면 고향이지~)

에밀린다 : 그래 이제 전라도는 타향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든 고향이다 이 말이제.

베벌리 : 하먼 하먼. 인심 좋고 친절한 절라도 사람들이랑 오래 살다봉  
께 우리도 이제 전라도 사람 다 되야부렀어. 전라도는 우리  
의 제2의 고향이여. 서로 서로 정붙이고 알콩달콩 잘 살아  
보더라고 잉.

슈우꼬 에밀린다 : 맞는 말이라우, 참말 이제 절라도는 우리들 제2의  
고향이랑께.

최향화 : 그리고 말이제 저-거시기...

슈우꼬 : 거시기 거시기 하지 말고 싸게 싸게 말해 보란 말이여.  
거시기는 귀신이나 도채비도 모른단 말 몰라서 그러고 있어!

베벌리 : 그래? 그럼 거시기는 거시기 허고  
오늘은 우리 모두의 축젠디 우리 넷이서만 이렇게 나와서  
씨부렁거리면 차곡차곡 밀린 다음 순서는 어쩔것이랑가.  
어서 양잔허게 인사허고 내려가세 잉.

에밀린다 : 우리들의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여러분들께 감사허고 또  
감사허구만이라우. 그리고 만장허신 여러분 오늘은 근심  
걱정일랑 확 붙들어 매시고 이 시간을 유쾌하게 보내시기  
바래요-잉.

모 두 : 허벌나게 감사허요 잉. 또 봅시다.

## 곡성으로 띄우는 편지    조 태 일    낭송: 박미향

사람들, 곡성 사람들  
고집이 바윗덩어리보다 더 센 사람들,  
오늘도 높푸른 하늘 믿고  
파도 파도 자갈뿐인 땅을 파면서도  
압록강 보다 푸른 마음 넘실대며  
사람들, 형제간인 곡성사람들  
곡성땅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죽곡면 원달리 동리산 태안사에서 태어나  
광주를 거쳐 풀씨처럼 떠돌다  
서울의 한 귀퉁이에서  
옥천 조가 조태일은 이 글월 올립니다.  
일제하 5년을 겪고 여순사건을 겪으면서도  
태안사에서 동계국민학교까지 걸어다니던 시절이  
오늘까지 한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많던 산짐승들도 다 무사한지 궁금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새벽 압록강을 건너  
광주로 피난하던 시절  
뒤를 돌아보며 곡성의 산천을 모두  
눈속에 가슴속에 담았었죠.

사람들, 곡성 사람들  
마음 굳기로 대나무인들 따르겠소?  
마음 너그럽기로 아침 햇살인들 따르겠소?

40년을 풀씨처럼 떠돌다  
오늘 문득 곡성을 떠올리니  
눈물보다 앞서 가슴 먼저 터져오네요.  
이 풍파 속에서 눈을 뜨면 먼저 곡성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포근하고 아늑한 곡성땅에서 잠을 이룹니다.  
시를 쓸 때도, 서울 거리를 누빌 때도  
죽곡의 대나무처럼 곳곳이 생각하고  
곳곳이 걸어다니는답니다.

곡성이여, 청정하라, 기름져라  
영원하라, 고집 세우라

## 가을

낭송: 최향화

가을이 왔어요  
눈에 고개 숙인 나락을 보면  
마치 농민들이 찬란한 웃음을 씨놓은 것 같아요  
길옆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마음속이 한동안 처량하고 슬퍼요  
이 낯선 도시에 와서 숲처럼 뾰뾰이 늘어선 높은 건물을 보며  
인파가 용솟음 치는 것을 보며  
혹시 혈의 열정이 있을는지  
아니면 바다와 같은 포부가 있을는지  
바닷물이 차졌어요  
바닷바람도 추워졌어요  
아, 낯선 가을바람  
기억중의 갑문을 불러 역었어요  
혹시 이 가을이 나에게  
오래도록 갈망해온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LIFE

낭송: 에밀린다 엠 초우

Life is confusing.  
Life is experiment.  
Life is unique.

Why waste to it?  
If you can do something,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Everyone is unique,  
Everyone has a mission to fulfill.

So, you go ahead, do the best you can.  
Help others that need you  
And you will know the difference.

# 삶

번역시 에밀린다엠초우

삶은 혼돈

삶은 실험

삶은 특별한 것

그대 뭔가 이세상에

남다른 걸 하고 싶다면

삶을 어찌 낭비하리

모든 이는 특별하고

모든이는 채워야 할 사명을 지녔기에

그대 어서 나아가 최선을 다해

그대 손길 필요한 곳에 도움주어야 하리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할 터이니,

물 걷는 사람    이기철    낭송: 신춘자

새벽에 물 걷는 사람은  
오늘 하루 빛나는 삶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를 건너는 바람소리 포플러 잎에 시릴 때  
아미까지 내려온 머리카락 손으로 걷어올리며  
새벽에 물 걷는 사람은  
땅의 더운 피를 길어 제 삶의 정수리에  
퍼붓는 사람이다.

풀잎들의 귀가 아직 우레를 예감하지 못할 때  
산의 더운 혈맥에서 솟아나는  
새벽의 물 걷는 사람은  
흰 살이 눈부신 아침 쟁반에 제 하루를 담아  
저녁의 편안을 마련하는 사람이다.

나무들도 아직 이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른 새벽에  
옷섬이 터질 듯 부푼 가슴을 여미며  
새벽에 물 걷는 사람은  
목화송이 같은 아이들과 들판 같은 남편의  
하루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물 걷는 사람이여,  
그대 영혼의 물 길어  
마른 나뭇잎처럼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나의 가슴에 부어다오

나는 소낙비를 맞고  
가시 끝에 꽃을 다는 아카시아처럼  
그대 영혼의 물을 받고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되련다.

마음으로 가는 길

낭송: 이현자

마른 풀 한줌 자리삼아  
새소리 물소리 자리 삼아  
숲속에 고요히 앉자 명상에드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생각의 끝을 따라 마음을 찾아가네

달빛을 가린 구름 모래위에  
희노애락 번뇌의 집을 짓고  
생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내보습을 부끄러워 부끄러워  
거울에 비친 내그림자에  
내가 속고 있구나

마음을 비워 비운다는 생각도 버려  
구름에 가리워진 장막에 저달을 보라  
번뇌의 불꽃 애욕에 불길이었네

허공을 가리워던 눈앞의 티 끝이었네  
고요한 마음자리 바람 없는 물결위로

오늘 나는 빈배 가득 붉은해 안고가네  
안고가네 빈배가득 붉은해 안고가네  
빈배가득 안고가네  
붉은해 안고가네



## 활쏘기(國弓)

낭송: 박혜숙

한손에 활을 들고  
한손에 살을 들고,  
텅 빈 가슴  
단전에 뜻을 모아  
비정비팔...  
사대에 홀로 서니  
저 대지 넘어  
과녁이 외롭구나.  
큰 뜻  
넓은 마음으로  
현에 살을 매겨,  
앞 손은 태산을 밀고  
뒤 손은 호랑이 꼬리를 당기듯...  
용맹한 궁체에  
무사의 혼이 살아난다.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다.  
숨에 물이 스며들 듯.  
앞 손도 모르게  
뒤 손깎지가 빠지고,  
시위를 떠난 살은  
허공을 가르다.  
쏟아진 살은  
시간의 공간을 넘고  
생각과 상념을 넘어,  
무사의 혼과 기를 담아  
작은 점  
과녁 홍심에 쏘인다.  
관중이요! 관중이요!  
고전의 힘찬 소리에  
땅이 놀라고  
하늘이 흔들린다.  
하지만 무사는  
속절없이 과녁을 보고,  
말없이 뜻을 모아  
빈 활에 살을 매긴다.

사모     조지훈     낭송:한수진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가슴으로 죽이며  
당신은 멀리로 잃어지고 있었다.

하마 곱스런 웃음이 사라지기 전  
두고 두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잊어 달라지만  
남자에게서 여자란 기쁨 아니면 슬픔

다섯 손가락 끝을 잘리 핏물 오선을 그려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밤에 올려보리라  
울어서 멍든 눈흘김으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 그리운 바다 성산포 - 이생진 낭송:고동실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난 떼어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과제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해삼 한 토막에 소주 두 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혼자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  
술에 취한 섬 물을 베고 잔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수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절망을 만들고 바다는 그 절망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절망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절망을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  
온종일 바다를 바라보던 그 자세만이 아랫목에 눕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죽한 존재 모두 바다만을 보고 있는 고립.  
바다는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나절을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손을 놓고 돌아간 뒤 바다는 멍하니 마을을 보고 있었다.  
마을엔 빨래가 마르고 빈 집 개는 하품이 잦았다.  
밀감나무엔 게으른 윤기가 흐르고 저기 여인과  
함께 나타난 버스엔 덜컹덜컹 세월이 흘렀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술을 좋아하던 사람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섬 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짚신 두 짝 놓아 주었다.

삼백육십오일 두고두고 보아도 성산포하나 다  
보지 못하는 눈!  
육십 평생 두고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